

# 교양 학생평가기획단 최종보고서

모듬명		A조				
구성원 인적사항	대표	이름	학과(부)	학번		
	구성원	이름	학과(부)	학번		
		이름	학과(부)	학번		
		이름	학과(부)	학번		
제안 영역		1. 실제 수업 운영(수업방법 평가 등)	O			
		2. 신규 교과목 개설	O			
		3. 대학 교양교육 정책	O			
		4. 기타사항(환경, 공간, 시스템 등)				
1. 주제는 무엇인가요?						
교양과목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여 교양에 대한 학생들의 세부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대학 교양 운영 방식과 비교하여 우리 대학 교양 교과목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2. 해결하고자 하는 교양 교육과정 문제는 무엇인가요?						
1. 강의 수강 과정 속에서 역량 관련 학습 진행과 그에 따른 역량 강화에 대한 불확실함 2.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명확한 주제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의 강의 운영						
3.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데이터 및 통계, 선행연구 자료 등 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b>Theme 1. 교양 교과목 역량향상 관련 인터뷰 정리</b></p> <p>-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 교과목 운영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역량향상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만을 2차적으로 정리, 차트화하여 결과를 도출했다.</p> <p>■ 지금까지 수강했던 교양 강의 중에 기억에 남는 강의</p>						

### 역량별 기억에 남는 강의

역량	기억에 남는 강의 수
etc	0
표현과소통	2
생활과예술	2
자연과기술	0
인간과 사회	4
공동체	3
감성	0
창의	1
기초과학	2
기초도구	0

> 수강했던 교양 강의 중에 기억에 남는 강의를 역량별로 정리하였다. [균형교양] 인간과 사회 영역에서 인상 깊었던 강의로 가장 많은 강의가 뽑혔다. 이어서 [역량교양] 공동체 영역이 2위를 차지했다.

■ 강의 수강 과정 속 역량 관련 학습의 진행정도

### 역량 관련 학습진행 만족도

만족도	비율
만족스럽다	20%
보통이다	40%
아쉽다	33%
매우 아쉽다	7%

> 보통이라고 응답한 인터뷰이는 얕은 지식습득을 문제라고 말했다. 부정적인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교양 과목을 나누는 모호한 분류 기준과 주제와 교양 내용의 연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인상 깊은 강의의 영역에서조차 관련 학습이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강의 수강 후 실제 과목 관련 역량 강화수준

## 강의 수강후 실제로 과목 관련 역량이 강화되었나요?



> '매우 강화되었다'의 답변에는 해당 강의를 배울때는 힘들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다방면의 지식들이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개인 역량이 많이 강화됐다는 의견이 있다. '강화되었다'의 답변에는 강의 내용과, 발표 방법, 수업을 진행하면서 넓어지는 사고방식, 전공과목의 기초강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강화되지 않았다'고 답한 의견에는 교양수강의 목적이 졸업요건 충족에 가깝다는 것과 배움의 기간이 너무 짧은 것, 특징적으로 표현과 소통영역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모르겠다' 라는 의견에는 강화되려면 계속 경험하고 자극받아야 하는데, 학점제나 졸업요건 이수, 수강 신청 등으로 제한이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역량(창의·감성·자연과 기술 등)과 관련해서 새롭게 배워보고 싶은 분야

예술 : 스포츠

역사 · 문화 : 서양사, 고전 역사, 외국 문화

경제 : 실생활 관련 경제 지식

언어 : 프랑스어, 제2외국어, 한국어 말하기 전략

IT : 포토샵

공학 : 공학과 경영 융합한 과목

기타 : 일상적인 생활, 수학

### ■ 개설 희망 과목

대체로 비전공학생들을 위한 교양 강좌 개설을 희망하고 있었다. 비전공학생들을 위한 음악 교양이 개설돼 가볍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하는 학생들이 있었으며, 경제 과목을 경영학과 학생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듣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또한 IT 관련 과목을 타과 대상으로만 두지 말고 범위를 확장하자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또한 예술 계열 교양 흥미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포토샵 관련 실습 수업, 영상 편집 실습 수업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수업을 희망했다. 타 학과와의 융합을 통한 강의를 기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인문학에 치중된 교양 강좌를 지적하기도 했다. 해킹, 정보보안 등 사회에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기를 기대하는 입장이었다.

그 밖에도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 감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었으며, 메타버스, 스포츠 관련 교양 등 특수한 주제의 교양 강좌가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 총평 >

종합적으로 자연과 기술, 감성, 기초도구 영역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강의 수강의 목적에 따라 역량 강화 체감도가 달라지기에 명확한 주제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의 강의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Theme 2. 타 대학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 조사

- 타 대학에서의 교양 운영 방식을 확인하여 전남대학교와의 차이점에서 오는 이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적은 표본으로 최대의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국립대], [수도권 지역 사립대], [지방권 지역 국립대], [지방권 지역 사립대] 4개의 영역을 기준으로 각 하나의 대학교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학교의 기본적인 운영 계획과 대표적인 강의를 중점으로 조사하였다.

### ① 서울대학교

#### - 서울대 교양 과목 운영 방식

##### · 과정별 졸업(수료) 소요 학점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교과 구분별 최저학점 포함 최소 130학점 이상이고, 그중 교양 과목은 최소 36학점 이상(최소 36 ~ 최대 51학점. 평균: 41~42학점)

이수해야 한다.

##### · 교양교육 목적

교양 교과목을 3개 영역으로 나누어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건전한 판단 능력과 우리 사회의 지적 리더로서 요구되는 비판적, 창조적 사고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현대 지식인으로서의 소양과 학문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 · 필수 교양 과목

대학별로 약간 상이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양상을 띄었다.

- 1) 학문의 기초 중 사고와 표현에 해당하는 '대학 글쓰기1(또는 1(2))' 와 '대학 글쓰기 2'과목들을 4 또는 7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대학 글쓰기 2'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글쓰기 주제를 가진다. EX) 인문대학: 인문학 글쓰기,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 과학기술글쓰기 등)
- 2) 학문의 기초 중 외국어 분야에 해당하는 '외국어' 2개 교과목을 4~6학점 취득해야 한다.
- 3) 학문의 세계 영역에서 최소 12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 - 서울대 교양 교과과정

##### · 학문의 기초

대학에서의 학문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학사과정 이후의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 영역으로 5개 분야로 나뉜다.

「사고와 표현」, 「외국어」는 모국어와 외국어의 말과 글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정연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이다. 「수량적 분석과 추론」은 학문적 논의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수리 통계적 분석과 추론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목이다. 「과학적 사고와 실험」은 과학적 기초 지식을

연마하고 실험 실습 방법을 체득하는 기초과학 분야 교과목이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와 정보 활용」은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처리의 원리와 적용 방법을 이해하는 교과목이다.

#### · 학문의 세계

인간 삶의 기본이 되는 주요 학문영역과 주제들에 관해 자유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균형 있는 지적 소양과 통찰력을 배양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과 영역으로 7개 분야로 나뉜다. 대학교육을 경험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각 학문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각 학문의 기본적인 방법론도 체득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조사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주장을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자기 주도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함양한다. 인간의 삶과 사회 및 자연의 주요 문제들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과 참여 능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교과목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으로 나누어져 있다.

#### · 선택 교양

학생 개인의 관심과 특성에 맞추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과 영역으로 5개 분야로 나뉜다.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과 지적 경험을 도모하여 사고의 모험과 자기계발을 통해 스스로의 인성과 진로를 개척하고 발전시켜가는 토대를 제공한다.

「체육」과 「예술 실기」, 대학의 삶과 학문에 대한 신입생들의 입문을 돕고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대학과 리더십」, 학생들의 자율적인 연구 능력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자율교과목과 개별 분과학문을 넘어서 통합적 지식과 현대 사회의 복합성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제적 교과목인 「창의와 융합」, 영어로 진행되어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도록 돕는 「한국의 이해」로 구성된다.

#### - 서울대 인기 교양 강의

[죽음의 과학적 이해] (Prof.유성호)

· ‘학문의 세계’ 中 ‘생명과 환경’

· 강의 설명

이 교과목의 목적은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다른 모든 전공 학생이 교수의 강의를 통해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인 죽음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이러한 지식의 바탕이 되는 역사적/철학적 함의를 분석하여 현대 사회에서 죽음에 의한 다양한 사회 현상의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죽음과 관련한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고,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죽음의 현상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고찰을 통해 죽음에 대한 냉철한 사고를 기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이 강의에서는 죽음에 관련한 인류의 역사적 인식, 사회적 함의 및 철학적 함의와 더불어 병태생리, 독성학 및 사회-의학적 분야의 과학적 분석과 현대 사회에서 죽음과 관련된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탐구하게 될 것이다.

[심리학개론] (Prof.박형생, 김수안)

· ‘학문의 세계’ 中 ‘인간과 사회’

· 강의 설명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심리학적 지식과 방법론을 소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인간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한다.

[흔들리는 20대: 청년 심리학] (Prof.곽금주)

· ‘학문의 세계’ 中 ‘인간과 사회’

· 강의 설명

대학 시기는 성인기로 가기 위한 전환기이다. 이 시기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시기이다. 본 강의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성격, 정서, 능력, 직업, 사랑, 성공에 대한 자기 이해와 탐색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기초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과학의 철학적 이해] (Prof.김영)

· ‘학문의 세계’ 中 ‘역사와 철학’

· 강의 설명

이 과목에서는 경험 과학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철학적 물음들을 선택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과학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가? 과학 활동은 세계에 대한 진리를 산출하는가? 과학은 과연 진보하는가? 과학적 활동은 흔히 이야기되는 것처럼 합리적인가? 과학은 가치중립적인가? 과학과 사이비 과학의 구분은 어떻게 가능한가?

#### - 서울대 이색 교양 강의

[산과 인생] (Prof.김진성)

· ‘선택교양’ 中 ‘창의와 융합’

본 수업은 등산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산과 더불어 호흡하며 호연지기를 길러 학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강생들이 등산을 통해 인내와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자연을 대하는 슬기로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이라는 열린 교육의 장에서 여러 학문들과의 융합을 통해 대화의 장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생활 원예]

· ‘학문의 세계’ 中 ‘생활원예’

본 과목에서는 학부생들에게 일반교양과목으로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원예 지식을 제공한다. 즉 원예작물의 종류와 이용, 사회원예, 원예작물의 생육과 환경, 재배기술, 번식기술, 화단 가꾸기, 정원 조성관리, 난과 분재 가꾸기, 화훼장식, 잔디관리, 실내조경, 채소 및 허브 이용, 가정채소재배, 가정과수재배에 대하여 시청각 보조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한다.

· 수많은 꽃과 나무에 대해 알아보기 때문에 수강하고 나면 식물 박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첫 수업 때 받은 채소나 화초를 키우면서 재배보고서를 쓰는 것이 과제인데, 바질과 배추를 키웠다는 지인은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한다.

[명상과 수행]

· ‘학문의 세계’ 中 ‘역사와 철학’

본 수업은 종교적 실천 전통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종교 전통의 명상과 수행의 여러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종교 전통이 지향하는 궁극적 실재의 이해 혹은 일체에 도달하기 위한 정신적, 신체적 수행 양상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종교 전통의 명상과 수행법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과 함께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대화의 태도를 함양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여러 종교의 명상과 수행법에 대한 수업. 강의 시간에 함께 명상하는 수업으로 유명하다. 명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느낌과 통찰 등을 적는 ‘의식 탐구 일지’가 주된 과제 중 하나이다. (명상 시간에 조는 학생들도 꽤 있다고 한다)

[소리의 과학과 악기 제작 체험]

· ‘선택 교양’ 中 ‘창의와 융합’

본 과목에서는 음악 연주에 사용되는 각종 악기의 동작 원리를 과학적으로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수강생 각자가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스스로 제작한다. 또한 제작한 악기를 사용하여 적당한 곡을 연주하도록 함으로써 소리의 과학이 악기 제작을 거쳐 음악 연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험하게 한다.

한 학기의 강의 시간 중 전반부 즉, 8주간 정도는 악기와 관련한 소리의 과학을 강의하고 세계의 각종 민속악기 및 교수가 직접 제작한 여러 가지 악기를 소개하여 악기의 진화과정을 통해 악기 제작의 원리를 습득하게 한다. 학기의 후반부에는 1조당 2명으로 구성된 각 조에서 악기제작 계획을 발표하고, 수강생 모두가 참여하여 토론을 거친 후 각 조의 악기 제작 계획을 확정한다. 학기의 끝 시점에는 각 조에서 제작한 악기를 소개하고 시연한다.

· 자신만의 독특한 악기를 제작하는 수업. 학생들은 목공소에 가서 직접 나무로 악기를 만들거나 프로그래밍으로 미래 지향적인 악기를 만든다고 한다. 수업 후반부에는 발표회를 열어서 각자 만든 악기로 곡을 연주하는데, 소리를 못 내는 학생들도 여럿 있다고 한다. 완벽한 악기 제작보다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 ② 중앙대학교

### - 중앙대 교양 과목 운영 방식

#### · 과정별 졸업(수료) 소요 학점

졸업학점 132학점으로 과별로 차이를 보인다. (약학 162, 건축 160, 창의ICT공과대학 140, 소프트웨어대학140, 의학부는 교육과정에 준함) 그중 교양 학점은 29~45학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 교양교육 목적

중앙대학교는 기본 교양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열린 세계관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소통능력을 갖춘 인재,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신뢰성을 갖춘 인재, 융합능력을 갖춘 인재, 창의력을 갖춘 인재, 총 5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 · 필수 교양 과목

##### 1) 2019학년도 이후 필수 교양

- 글쓰기 : 전남대학교 성찰과 소통의 글쓰기 과목과 유사하다.
- 앙프레프레너십시대의회계 : 기초 수준의 회계 과목이다. 경영 비전공자가 회계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는 수강평이 있었다.
- 창의와 소통 : 주어진 텍스트를 읽은 뒤, 토론하는 수업이다.
- ACT : 조별활동이 수업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팀 창작물 평가가 주관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과목이다. 과목명만 보면 연극(연기)하는 과목인 것 같으나, 연기는 창작물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 Communication in English : 영어 말하기 수업이다.
- 컴퓨팅적사고와문제해결 : 비전문가용 코딩 수업이다.
- 디자인적 사고와 문제해결 :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대안을 만드는 실습수업이다.
- 공학, 예술, 경영을 융합한 과목이다.

##### 2) 5개 역량으로 분류된 핵심 교양 중 각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중앙대 교양 교과과정

공통교양, 핵심교양, 선택교양의 3개 영역으로 나뉜다.

### · 핵심교양

#### 1) 도전

전남대학교의 '역량 교양-창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더 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어 이 넓은 편이다. 인기 교양으로는 성의 과학, 건강한 삶이 개설되어 있다.

#### 2) 창의

전남대학교의 문화, 예술, 철학을 다루는 '역량 교양-감성'과 유사하다. 특이사항으로 스포츠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 3) 융합

전남대학교의 '균형 교양-자연과 기술'과 유사하다. 인기 교양으로는 연극과 뮤지컬, 의학의 역사가 개설되어 있다.

#### 4) 신뢰

인기 교양으로는 인간 행동과 심리가 개설되어 있다.

#### 5) 소통

### · 선택교양

#### 1) 도전

공통적으로 '글로벌', '기업가'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 사회적 성공, 성취와 관련 있는 과목들이다. 전남대학교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다.

#### 2) 창의

웹툰 창작론,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 인공지능의 세계, 창의적 디자인사고와 비즈니스모델 등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 3) 융합

4차산업현장맞춤형프로젝트, AI와 법, 사물인터넷과 데이터, 나노융합과 미래, Youtube멀티미디어창작과 비즈니스 등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 4) 신뢰

결혼과 가족, 부모되기 이론과 실제 등 일상생활에 도움 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 - 중앙대 이색 교양 강의

[핵심-소통] 중앙인과 한국사회 : 중앙대의 역사를 배우는 과목으로, 초청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선택-융합] CAU크리에이티브랩 : 네오트렌스(주)와 공동으로 운영되는 현장 실무 연계형 프로젝트 교양 과목이다.

## ③ 전북대학교

### - 전북대 교양 과목 운영 방식

#### · 과정별 졸업(수료) 소요 학점

입학년도별, 학과별 졸업 기준학점 및 교양 이수학점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평균적으로 졸업기준학점은 120~150, 교양 이수학점은 18~53으로 교양 이수 학점은 학과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의학과나 치의학과같은 특수학과에는 교양 이수 총 학점이 0인 경우도 존재한다. 그 외 특정과에서는 교양 총합의 최소와 최대가 동일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동일 단과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므로 교양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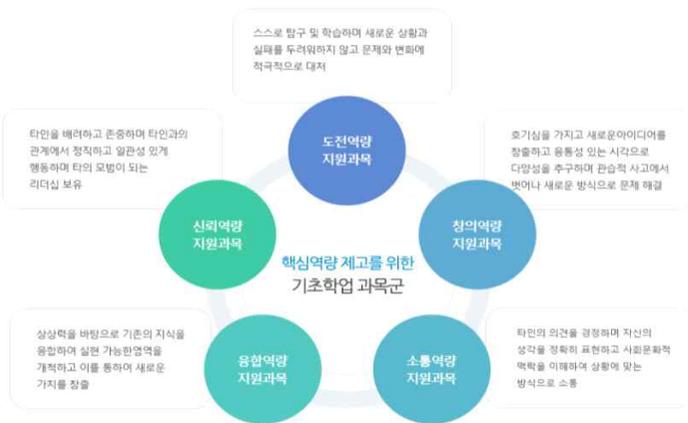


그림 1. 중앙대학교 다빈지교양대학 소개 > 교양역량 소개

수 학점은 학과별 특성에 맞춰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전북대 교양 교과과정(2019학년도 기준)**

대학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지도적 인격을 도약함에 필요한 과목으로 전공 과목 이수에 필요한 도구과목과 학문의 기본 개념과 탐구 방법을 수련하는 과목으로 편성하고 교양필수(교필)와 교양선택(교선)으로 구분한다. 교양은 최소 34학점 이수해야 하고, 최대 42학점까지 이수가능하다.

**· 기초교양**

기초교양은 대학에서 학문수행 및 향후 사회활동의 기본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목으로 공통기초와 이공계 기초로 구분한다. 기초교양은 총 21과목으로 공통기초 6과목, 이공계 기초 15과목으로 구성된다. 기초교양 내 문해력 분야에서 고전, 명작읽기(3학점), 사고력 및 표현력 분야에서 글쓰기(3학점), 실용영어(3학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총 9학점)

**· 핵심교양**

핵심 교양은 전체 학사과정의 중핵을 이루며, 인간, 사회 및 자연·과학·기술에 관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교과목 및 학제적인 교과목들로 구성하며, 인문적 사고의 기반, 사회이해의 기반, 과학적 사고의 기반으로 구분한다. 핵심교양 25과목에는 인문적 사고의 기반 9과목, 사회이해의 기반 7과목, 과학적 사고의 기반 10과목으로 구성된다. 핵심 교양 내 인간 분야에서 3학점, 사회 분야에서 3학점, 자연 분야에서 3학점씩 + 인간·사회·자연 분야 중 하나에서 3학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총 12학점)

**· 일반교양**

일반교양은 다양한 영역의 활동과 지적 성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형성과 자기 개발에 도움을 주는 교과목들로 구성한다. 일반교양 162과목에는 언어·문학·문화의 31과목, 역사·철학의 9과목, 사회과학 29과목, 자연과학 32과목, 수리·정보 15과목, 예술·체육 26과목, 경력개발 20과목으로 구성된다. 일반 교양 내 신입생정착, 학생지도 분야에서 대학생활과진로설계 1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전북대 대표적, 이색적, 인기 교양 강의**

**[사진의이해]**

- 2017년 2학기에 개설\_2학기에만 들 수 있는 수업이다.
- 정원 80명
- 사진예술이란 무엇이며 좋은 사진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하여, 사진의 기초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대폰사진과 전문적인 카메라를 능숙하게 다루어 나만의 개성있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사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양한 사진가들의 작품세계를 보고 이해함으로써 그 해답을 정리해 보고, 사진을 이해하는 올바른 사고와 자세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혼과가족관계]**

- 2017년 1학기에 개설\_1학기에만 들 수 있는 수업이다.
- 정원 80명
- “결혼과 가족관계” 수업은 결혼과 가족의 의미 이해, 관련 이론, 결혼 전 이성교제 및 파트너 선택, 혼례의식, 가족생활에서 갈등요인이 되는 다양한 영역을 학습하는 과목으로써 미래가족의 주체가 될 대학생들이 결혼과 가족에 대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가족생활의 여러 영역의 적응을 돕는다. 가족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학습은 대인관계와 연결되므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행복의심리학]**

- 2020년 1학기에 개설되었다.
- 정원 80명
- 행복 심리학은 인간의 행복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행복 심리학이 과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복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양적인 측정 방법을 필요로 한다. 본 과목을 통해 행복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살펴보고, 아울러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살펴본 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심리적 요인들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를 놓는다.

**④ 조선대학교**

**- 조선대 교양 과목 운영 방식**

**· 과정보별 졸업(수료) 소요 학점**

조선대학교의 졸업 이수학점은 130~140학점 가량이다. 일반학과는 거의 130학점이 졸업 이수학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5년제의 건축학부는 160학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양 과목의 경우 학부(과)별 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3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교양교육 목적**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초 역량 배양
- ✓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실천하는 민주 시민 역량 배양
- ✓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융복합적 사고 역량 배양

**- 조선대 교양 교과과정**

조선대학교의 전교생 공통 교양필수는 <사고와표현>이라는 과목이다. 이는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교과목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고와표현>은 1,2로 나뉜다. 1은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표현능력을 위한 공통과 정, 2는 계열별 특성을 살린 글쓰기 과정을 운영한다.

각각 2학점으로 2시간씩 운영되며, 분반당 정원은 40-50명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학과별 분반 수감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 **함께형 교양**

대학 설립 정신과 민주 정신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함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소양 교육 교과목이자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 함양 교과목이다. '학과별 <신입생 세미나>를 수강하고 '자기계발과 사회봉사' 영역에서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공통교양**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한 계열별 기초 지식, 글로컬 역량, 의사 소통 능력 및 비판적 사고, 정보의 능동적 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사고와 표현 1,2를 이수해야 한다.

· **기초교양**

기초 인문사회 과학과 기초자연과학의 기초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고전 / 글로컬 / 정보 / 기초인문사회과학-기초자연과학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각 영역마다 3학점씩 필수이수학점이 개설되어 있다. 인문사회 계열은 기초 인문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 계열은 기초자연 과학 영역 이수해야 한다.

· **균형교양**

대학의 핵심적인 지적 소양을 함양하고 학제간 학문 탐구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인간과 논리, 문학과 예술, 사회와 역사, 자연과 과학에 대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인간과 논이 / 문학과 예술 / 사회와 역사 / 자연과 과학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또한 각 3학점씩 이수해야 한다.

- **조선대 대표적, 이색적, 인기 교양 강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크리에이티브창업디자인] [K컬처창업기획]  
[현대생활과패션] [트라우마와긍정심리] [미래도시와문화콘텐츠]

2021년의 트렌드에 맞는 이색적인 교양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가 중요해지는 요즘 대학생을 위한 금융 과목, 창업 과목이 독특하게 개설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형 도시를 탐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양 강좌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보아, 요즘 교양 과목의 트렌드는 현실 반영적, 미래 방향성 추구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조선대 개설 예정 교양 강의**

전남대-조선대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공동 교양 과목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 개설 교양 과목은 다음과 같다.

<옷장 속의 세계시민/토론과 민주지성/공감의 시대와 반려동물/색채, 문화 그리고 상상력>

대학 간 교류를 통해 교양과목을 편성하고 있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조선 대학교와 협력하는 교양과목 편성 방안을 다양한 대학과 교류하는 방향으로 늘리면, 추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양과목 편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대안 등은 무엇인가요?**

**우리 대학 교양 교과목 운영방안 제안**

**1. 기존에 개설된 교과목 운영 방안 개선하기**

**가. 역량교양**

(1) 역량 구분 기준 명시

강의계획서에 핵심역량 (창의, 감성, 공동체) 비율이 퍼센트로 제시되어있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교과목이 존재한다.

※ **핵심역량과 교과목 간 관련성을 백분율로 표기**

- 창의역량은 융합역량, 문제발견해결역량, 컴퓨팅사고역량으로 구성
- 감성역량은 인문역량, 문화예술역량, 놀이역량으로 구성
- 공동체역량은 자기설계역량, 시민역량, 글로컬역량으로 구성

백분율 표기는 학생들이 강의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백분율 보다는 무슨 역량과 관련이 있는지 표기하도록 한다. [eg. 창의역량 40% (X), 창의역량 - 문제발견해결역량 (O)]  
핵심역량 설명과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의 강의계획서 보완이 필요하다. 과거의 강의계획서를 연도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2) 학습의 질 - 역량 강화 목적 달성

인터뷰 결과,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 기준은 교수님의 강의력, 성적, 수강 과정의 편이, 강의 이해도 등이 있었다. 역량 강화에 대한 답변은 없었는데, 학생들이 우리 학교 교양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학기말에 실시하는 강의 평가에 우리학교의 핵심역량에 대한 설명과 수강한 강의와 관련된 핵심역량을 표기하여 역량 강화 여부 설문을 진행하기를 제안한다. 덧붙여 학기말에 세부성적 공지를 한 후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적 공시 후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3) 학습량 (과제, 시험)

교양과목의 과제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전공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예를 들어,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과목에서 글을 4개나 써야하는 것이 부담이었다. 2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과제가 많은 과목의 경우 n개중 n-3개의 과제 수행을 하면 pass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교수님들의 재량이 필요하다.

교양임에도 불구하고 시험범위가 과도하게 많으면 부담이 크다. 시험범위가 많을 경우, 지필고사를 2회 이상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시험 일주일전 일부 주차의 학습 내용을 시험범위에서 제외하여 공지하는 방법도 있다. 암기량이 많은 과목의 경우, 오픈북 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이 교양의 목적에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

(4) 수업진행방식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강신청 전 강의계획서에 강의진행방식(녹화강의, 실시간비대면, 대면강의)를 명시하고 학기 중에 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량이 많은 과목의 경우 녹화강의를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어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수님의 사담이 줄어들어 컴팩트한 강의 내용 전달이 가능하다. 의견 나누기, 발표 등의 토론.토의 등의 과목은 실시간 비대면 강의를 효율적이다. 반면, 대면강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팀플 과정에서 서로 말을 주고 받을 때,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대면일 때에는 팀원들끼리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비대면, 대면 강의의 장점을 모두 고려하여 각 과목 특성에 적합한 강의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학기말 강의 평가를 통해 각 과목별로 수강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예시 - [감성] 2021학년도 1학기 서양문학기행 (이주리)

창의	감성	공동체
① 융합역량	인문역량, 문화예술역량	글로벌역량

- ② 본 강의의 질은 최상이다. 학과에 상관없이 이해하기 수월한 수업이다. 게시판 토론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시야가 넓어졌다. 강의와 양질의 수업자료가 제때 올라와 계획적으로 수강이 가능하였다. 학점 부여 전 세부 성적이 공지되어, 채점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고, 부여된 학점에 납득할 수 있었다.
- ③ 소설책 6권이 시험범위로 많은 편이나 오픈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여 꼼꼼히 공부를 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학기 중에 소설책 줄거리와 강의가 흥미로웠으나, 시험기간에는 공부양이 많아 벅찬 감이 있었다. 지필고사는 기말고사 한 번이었다. 시험을 2번 보면 시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④ 강의계획서에 공지한 수업진행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녹화강의로 진행되어 복습이 가능했다.

나. 기초교양

기초교양은 학문의 기초가 되는 논리적·수학적·과학적 지식과 사고 역량을 함양하고, 외국어 학습을 통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한다. 기초교양은 '학문을 탐구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교과목', '외국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목'을 분류기준으로 한다.

기초교양 교과목은 기초과학과 기초도구로 구분되어있고, 세부적으로 일반 물리1, 일반 물리2, 에센스 물리학, 일반물리 실험, 생물실험, 일반생물, 대학 수학, 수학1 연습, 수학2 연습, 지구과학, 통계학 및 실습, 일반화학, 화학실험, 한문, 고전 라틴어, 기초 희랍어, 언어의 이해, 영어 글쓰기, 영어 읽기와 토론, 기초독일어, 생활독일어, 프랑스어 입문, 실생활 프랑스어, 생활영어, 기초러시아어, 기초스페인어, 생활 러시아어, 생활 스페인어, 취업 영어, 기초영어, 영문강독, 기초일본어, 생활 일본어, 기초중국어, 생활 중국어, 한자와 중국문화, 논리학이 강의로 개설되어있다.

현재 전남대학교는 입학 연도별 교양 영역 이수 기준에서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대하여 계열별 의무 이수 학점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

“ 인문 사회계열 및 예체능 계열 : 균형 교양 '자연과 기술' 영역에서 최소 3학점 이상 취득, 이공계열 : 균형 교양 '인간과 사회' 영역과 기초교양 '기초과학' 영역에서 각각 최소 3학점 이상 취득”

이처럼 단과대별 의무적으로 기초교양을 이수하도록 권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 자체에서도 기초교양 필수 이수로 지정해놓았다.

재학생의 대부분이 기초교양을 이수 중인 상황 속 기초영역에 대해 공통적으로 '왜' 듣는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다수 존재한다.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학문 탐구를 위한 기초를 쌓은 것 같지도 않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기초교양 영역의 실용적 성격을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초과학의 경우 학문의 기초를 쌓는다는 목표를 기준으로 실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여 수업 진행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 기초도구의 경우 '언어'라는 특수한 영역의 특성에 맞춰 실용성에 초점을 두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별 외국어 능력 차이를 반영하여 하나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 기초교양-기초도구 <생활영어 1>

(1차 인터뷰 자료와 예비타담의 의견을 수합)

(1) 수업목표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 어휘 및 표현을 익힐 뿐만 아니라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본 교과목은 영어 말하기 및 듣기에 중점을 둔 교과목으로 일상생활에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2) 학습의 질: 교수님과 분반에 따라 학습의 질이 차이가 발생한다. 노력하거나 공부해서 시험을 본다고 보는 각자의 듣기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학생이나 고학년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쉽고 기초적인 것을 반복하다 보니 회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 익숙하지 않다는 '외국어'의 특성상 외국어 관련 수업은 쉽고, 기초적인 것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는 '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표현이나 주제를 바탕으로 조금씩 심화하고, 발전되는 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학습량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평가 기준이 높다. 듣기과제나 발표과제, 글쓰기 과제를 기본 과제로, 시험으로는 말하기 시험이 설정되어있다. 과제 중 조별로 진행되는 것도 존재한다. 시험 자체도 암기하거나 응용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회화 실력 향상에 이바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분반에 따라 성적 차이가 심하게 발생한다.

→ 교양이라는 명목상 학습량이 지나치게 과해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 수업 내용과 연관된 방향으로 시험 내용을 수정하고, 조별 활동의 경우 교수님의 피드백이나 확인이 적절히 반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4) 수업 진행방식

대면, 비대면이 모두 시행된 강의로 학생참여형 강의이다. 원어인 교수님과 학생들과의 영어 대화를 주요 소통방식으로 한다.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에 따라 학습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난다. 대면으로 시행한 경우에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강의의 경우 회화연습을 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 비대면 강의에 대한 수업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대면으로 진행되는 활동들을 비대면으로도 적용할 수단을 고민하고, 소통방식의 다양성을 초점으로 수업 진행방식을 여러 가지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2. 새로운 교과목 개설하기

### (1) 경제 <대학생을 위한 실용 경제 지식 쌓기>

배경과 목적	성인이 된다는 것은, 곧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 혹은 금융과 관련한 교육을 메이저로 다루고 있지 않다. 어떻게 저축해야 하며, 어떻게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등의 실용적인 경제 지식이 빈약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따라서, 이런 돈과 경제에 비교적 무지한 대학생들을 위해 쉽고 기본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 경제·금융 지식을 쌓는다.
신설 필요성	현재 전남대학교에는 경제학부 이외의 타 전공 학생들이 경제를 쉽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교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생들을 비롯한 성인들 사이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예삿일이 아닐 정도로 경제 및 금융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상태이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는 경제의 기본을, 실용적인 지식을 배워야 할 때이다.
기대 효과	대학생들이 경제 및 금융에 관심이 많은 만큼, 새롭게 개설된 교과목에 대한 홍보가 활발하다면,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강의를 통해 경제학부 이외의 타 전공 학생들도 경제를 더욱 쉽고 재밌게 경험하여 미래에 더욱 똑똑한 경제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교내 개설 교과목과의 차별성	현재 경제 관련 개설 교과목으로는 대표적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수학」, 「경제철학」 등이 있으나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교과목과는 성격이 매우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목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경제 강의이다.
타대학 유사 교과목 및 동일 교과목	조선대 - 대학생들을 위한 실용 금융

### (2) 문화예술경영

배경과 목적	요즘 예술인들 사이 새롭게 떠오르는 계열이 있다면, 바로 '문화예술경영'이다. 문화예술경영이란 문화예술의 보급과 수용, 관련된 제반활동을 경영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술을 더욱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로 다시 만드는 것인데, 이는 예술적인 특수성에 경영이라는 보편성을 더한 개념이다. 흔히 우리는 예술가는 배를 굶는다는
--------	---

	<p>말을 하는데, 예술인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경영이 된다. 예술가의 예술 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가치를 더 높여줌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대에 예술의 가치를 지키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p> <p>따라서 우리 대학에도 문화예술경영인 양성을 위한 여러 방면의 수업이 개설된다면, 문화예술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자본주의는 더욱 질어지는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문화예술경영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양 교과목 개설을 제안하고자 한다.</p>
신설 필요성	<p>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요즘,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과목이 우리 대학에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 대학에 예술 관련 교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예술가의 역량을 길러주는 교양 과목 외에 직접 예술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과목은 미비하다고 본다.</p> <p>문화예술활동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합창단, 극단, 무용단처럼 직접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그 문화시설인 미술관, 극장, 콘서트홀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관련인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바로 문화예술경영이 예술계열과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에 맞는 교과목 개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p>
기대 효과	예술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예술과 다소 동떨어져있다고 느끼기 쉬운 경영학을 접목함으로써 신선함도 동시에 줄 수 있다. 이러한 교과목은 문화예술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예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기르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이다.
교내 개설 교과목과의 차별성	교내 개설 교과목 중 창업 관련 교과목을 살펴보면, 예술 관련 창업은 찾지 못하였다. 창업을 학생들은 어렵고 지루한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문화예술과 창업이 함께 접목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안다면 창업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타대학 유사 교과목 및 동일 교과목	<p>여러 대학의 문화예술경영 과목을 살펴본 결과, 동아방송예술대학의 '1인 예술가 창업실무'라는 과목이 좋은 사례로 파악되었다. 해당 과목은 동아방송예대의 교양선택 과목으로, 창의융합역량과 지식탐구역량을 위해 개설된 과목이다. 이는 1인 예술가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기본개념과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학습이 되도록 돕는 과목이다. 또한 실제 활동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실제 창업 및 경영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p> <p>해당 과목의 교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예술가 창업의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li> <li>● 방송예술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li> <li>● 1인 예술가 창업 실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li> </ul>

	<p>● 1인 예술가 창업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을 스스로 추진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p> <p>이는 문화예술경영 자체를 잘 이해하고, 짜여진 목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송예술 산업분야의 특징과 관련 창업을 둘러싼 내·외부적인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1인 방송예술분야 성공모델링을 통해 자신의 독창적인 기업가 정신을 만들 수 있으며, 1인 방송예술가 창업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창업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캔버스를 작성할 수 있다. 이론적인 부분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설계를 직접해본다는 것은, 실제로 강의 수강 후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적극성을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이다.</p>
타 대 유사 과목 및 동일 교 과목	<p>또한 강의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포트폴리오가 평가 방법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해당 강의가 이론적인 부분보다 학생의 역량 성장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미디어 예술 산업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예술가의 자질, 창업과 기업가의 정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전공자가 아니라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문화예술경영인의 자질을 길러주어 변화하는 시대 양상에 걸맞은 역량으로 발전할 것이다.</p>

**5.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과(효과)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강의 수강 목적에 따라 역량 강화 체감도가 달라지겠지만, 이전보다 강의의 주제가 명확해지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핵심 역량 관련 학습 진행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